



여주 지역 유일한 불교계 복지시설인 여주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배우고 있다. 여주 신부사는 여주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불교 가꾼다

경기 양평 · 여주 · 하남

열고 있는 보우국사 추대식 및 어사행렬 제 현 행사 역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문화 축제가 됐다.

마지막으로 양평 불교를 대표하는 용문사 사나사 상원사 세 사찰이 지역불교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전무하고, 군청을 포함해 각급 지역 단체에서 구성된 실행단체도 없다.

이에 따라 용문사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겸한 포교당(선재정사)을 불교화관 형태로 활용해 시민선방이나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 보다는 지역불교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없고, 이것이 사암연합회의 활동 저하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반면, 사암련 차원에서는 양평·이천 사암련과 함께 군불교위원회를 구성해 군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고, 사암련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내고 불교회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특히 사찰들이 돌아가며 여주교도소에서 교리강좌를 열고, 사암련과 신부사가 전·후반기로 나눠 찬불가 경연대회를 여는 등 교도소 포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여주 불교를 대표하는 신부사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군 불교를 후원하고 지역 복지에도 나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재어린이집과 연꽃어린이집, 여주노인복지관 운영, 문화강좌 등을 통해 교육

· 복지·문화사업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나눔백일장과 합창단 활동을 통해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실행과 복지 등 불자들이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의 활동폭을 넓힐 경우 여주 불교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찰은 하남의 대표사찰 정심사를 비롯해 상불사, 광덕사, 다보사, 성법사 정도다. 이 가운데에서도 정심사는 시민선방인 '검단선원'과 성철 스님이 생전에 신도들에게 적극 권유한 기도법인 '아비라 기도'를 통해 수행과 실행 문화를 고양시키고 있고, 상불사는 가족법회와 어린이·

양평

산 좋고 물 좋기로 이름난 양평. 어떤 사찰엘 가도 시원한 불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10여 년 전 30여 곳에 불과하던 사찰 수가 지금은 100여 곳이나 될 정도로 양평 불교는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순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요인은 사암연합회의 활발한 움직임이다. 50여 개의 사찰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30여 곳의 사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계다가 매년 사암련 차원에서 불우이웃 돕기 일일차집과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장학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민들에게 '베짜는

불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 사암련이 군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양평사암연합회는 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여주와 이천의 사암연합회와 함께 군법당 지원을 위한 불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다. 사암연합회가 연대해 군포교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두 번째로는 불교축제가 곧 지역문화축제가 되고 있다. 지역문화축제가 불교축제가라는 등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음력 3월에 열리는 용문사 은행나무 축제는 남한강 연안대로 유명한 상원사 등 여러 사찰들이 참여하면서 지역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사나사가 격년으로

여주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주 불교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다. 여주 불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할 특징도 없는 데다, 다소 침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한 활동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불교 화합·군 포교 매진

청봉 스님 (양평 용문사 주지)

1992년 용문사를 창건하고 사암연합회 활동과 군 포교에 참여하고 있다. 양평사암련 회장을 역임하고 양평경찰서 경순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청봉 스님은 요즘도 태고종의 경기동부교구총무원장, 중앙법규위원,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주민에 무료 개방

의정 스님 (양평 용문사 주지·상원사 용문선원장)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2003년 용문사 주지로 부임, 부주지 보인 스님과 함께 도량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 스님은 용문사가 관람료 사찰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암련 활동에 매진

법송 스님 (여주 법천사 주지·여주사암련회장)

3년째 여주사암련연합회장을 맡아 여주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법송 스님은 법천사 활동 보다는 사암련 활동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정도로 사암련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최근에는 침체된 여주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천사 차원에서 군부대와 여주교도소 포교에 나서고 있다.



지역 불교발전 동분서주

회암 스님 (양평 사나사 주지·양평사암련회장)

회암 스님은 양평사암련연합회장을 연임하면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동학원 이사, 서울지하철범우회 지도부사, 철불협 상임이사, 여주교도소 교회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조계종 중흥조인 태고보우국사 조사전을 건립중이며, 지난 5월 화재로 소실된 요사체를 복원하는데도 전력을 쏟고 있다.



새싹포교·사회참여 힘써

세영 스님 (여주 신부사 주지·여주노인복지관장)

세영 스님은 11년째 신부사 주지로 있으면서 신행, 복지, 어린이 청소년, 군, 교도소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꽃어린이집과 선재어린이집을 열고, 초·중·고생들을 위한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사 복원 주력

호산 스님 (양평 상원사 주지)

1996년 주지로 부임한 이래 상원사 용문선원을 외호하면서 상원사 복원에 주력했다. 진일로를 개설하고 선원 2개 동과 요사채 등을 건립했다. 최근 호산 스님은 20사단 수색대에 군법당을 지어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6년째 산사음악회를 열었으며, 올해 6회째인 탐마배 스노보드대회 등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부대중위한 선방 건립중

해성 스님 (여주 신고달사 주지)

해성 고달사지에서 20년을 넘게 지내다 지난 1996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 신고달사를 창건했다. 현재는 200평 규모의 선방과 100평 규모의 요사채 및 식당을 짓고 있다.

해성 스님은 현재 짓고 있는 선방이 완공되면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와서 편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불교대학 개설 목표

무상 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

2000년 광덕사 주지를 맡은 무상 스님은 도로를 포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등 도량을 정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협소한 대웅전을 새로 건립하는 등 지역민들이 편안히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불교대학 개원도 예정하고 있다. 도심포교를 위해서는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생활속 실천도량 가꾸

원영 스님 (하남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은 2003년 미국 뉴욕에 보리사를 창건, 국제포교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불자 청소년들의 어학연수를 돕고 있기도 하다. 수행이 가장 중요한 신행이라는 소신으로 정심사를 '생활 속의 실천도량'으로 가꾸었다. 지역의 결사아동 20여명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포교에도 관심이 높다.



양평불교의 '손과 발'

성운 스님 (양평 법림정사 주지·양평사암련 총무)

양평불교의 '손과 발'로 불린다. 양평사암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총무와 재무 등을 맡아오고 있다.

성운 스님은 80년 법림정사를 창건, 사찰 자체활동보다 사암련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역불교 현안을 실질적으로 도맡아왔다. 올해부터는 법당 규모를 늘리는 한편 교리 강좌 등을 개설해 신도들의 신행을 원활히 해주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봉사단체 '보현회' 이끌어

문성 스님 (여주 구호정사 주지)

여주 불자들의 봉사단체인 '보현회'를 만들어 지역 불자 신행 및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보현회는 1993년부터 소책자마을 등 복지 시설을 매달 한 차례씩 빠지지 않고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문성 스님은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또 인근 장명여자중고등학교에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포교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특특튀는 포교 '눈길'

동효 스님 (하남 상불사 주지)

특특튀는 프로그램으로 왕성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화상 한자교실 등에 주력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가족법회로 연결해 상불사의 모토대로 '한마음 쉬어가는 도량'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상불사 한글법요집을 만들 정도로 적극적인 동효 스님은 자라나는 새싹 포교를 위해 어린이집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요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장 우미산 황새굴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요양원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항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